'난 아역배우들 군기반장'

메트로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오늘 아침부터 한겨울 추위

# 119회식·112송년회 아시나요

**요즘 연말모임 음주실태**

착한 송년회'가 확산되고 있다. 부어라 마셔라 로 흥청망청하던 음주 망년회'가 사라진 대신 봉사활동을 하거나 문화 공연을 즐기며 한 해를 마감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연말에 연지 소진을 독려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연말 황금휴가'가 새로운 풍속도로 정착될 조짐이다.

◆ **절주 송년회 가 대세** —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다음날 아침도 상쾌한 송년회' 사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특히 구호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나 팀별 송년회 방식을 사내 미디어인 미디어 삼성에 댓글로 올리는 동참 릴레이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다.

SK증권과 효성은 119회식 캠페인으로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

## 다음날 아침도 상쾌하게 절주하는 송년모임 대세

나 한 가지 술로, 한 장소에서(1차만), 오후 9시 이전에 끝내자는 의미다.

포스코는 '반 잔(2분의 1)만 채우고, 두 잔 이상 권하지 않고, 2시간 이내 술자리를 미무리하자'는 '2 2 2 캠페인'을, SK하이닉스는 '한 종류의 술로 1차만 2시간 이내로 하자'는 '112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가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6%가 절주

## 연탄 배달하고 김장하고 가족 초청해 밴드공연도

및 간소한 송년회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 **나눔 공연 송년회도 눈길** — 술 대신 의미 있는 송년회를 보내는 기업들도 많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2월 한 달을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봉사단체 600여 곳을 중심으로 나눔 송년회를 펼친다. 한화그룹도 이달 말까지 전국 15개 계열사의 임직원 2000여 명이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다. CJ E

## 연차활용 연말은 가족과 삼성전자 9일 공식휴무

&M은 15일 임직원들이 기부한 소장품을 판매하는 '기부마켓'을 열고, 수익금 전액을 홍동 노인과 보육원 난방비로 기부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동료와 가족을 접대하는 이색 송년회도 있다. SK그룹의 연합 동호회인 록밴드는 올해 처음으로 가족들을 초청해 공연할 예정이다.

◆ **연말은 가족과 함께** — 송년회 자체를 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권장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활용해 26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쉴 때 확실히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박용만 회장의 방침에 따라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직원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1일인 창립기념일 휴무를 연말 연휴를 사용하기 쉽도록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는 24일로 대체해 일부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까지 9일간 공식 휴무에 들어간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건전하고 의미 있는 송년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들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송년회'는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회의 도중 끌려나가는 장성택 TV공개**

북한 언론이 9일 김정은 제1위원장(작은 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출당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장성택이 체포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면>

/조선중앙TV 캡처

# 지방의회 청렴도 '10점 만점에 6.15점'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뽑힌 인구 기초의회 6곳 등 총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

권익위는 평균 종합 청렴도가 6.15점, 광역의회 청렴도는 평균 6.95점, 기초의회는 평균 5.70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의회의 청렴도는 부산시의회가 7.6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시의회가 6.26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의회 중에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으로 최고점을, 경기 용인의회가 5.08점으로 최하점을 각각 기록했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 의결 관련 금품 향응·편의 제공 경험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부패 인식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에 소속 직원, 지역 주민, 출입기자, 학계 관계자 등 1만4644명의 설문을 통해 실시됐다.

/윤다혜기자 y.dh@

# KT, 쇄신의지 있나

기자 수첩
이 채 영
<경제산업부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의 후임 CEO 선임 과정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CEO추천위 구성원 대부분이 이석채 전 회장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새 CEO 후보군도 이 전 회장의 사람들이 잇따라 포함됐기 때문.

특히 CEO추천위에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일영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오른팔로 통하는 대표적인 측근이다. CEO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는 이 전 회장의 대학 동문이며, 김응한 미시간대 석좌교수는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처럼 학연으로 얽힌 관계가 CEO 선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CEO 공모에 등록된 인사 중에도 이 전 회장과 관련된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현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표현명 사장과 정성복 KT 부회장이 대표적 인물. 표 사장 역시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동문이며, 정 부회장은 이 전 회장이 영입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CEO추천위가 모두 바뀌어야 이 전 회장의 색깔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일부 CEO추천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12일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KT는 변해야 산다. 이 전 회장의 색깔을 벗고, 제2의 이석채 시대를 반복해선 안 된다. 과연 '국민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KT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장성택, 반당 종파행위"

## 북 "모든 직무 해임하고 출당·제명"… 부정부패·여자문제도 거론

북한이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출당·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대단히 크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도 이날 오후 3시15분께 당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앉아있던 장성택이 군복을 입은 인민보안원 두 명에게 끌려나가는 사진을 화면으로 방영했다. 북한이 고위 인사를 숙청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장성택이 숙청된 가장 주된 사유는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다.

장성택이 자신을 추종하는 분파를 만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당의 영도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중앙통신은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제도 보위, 정권 보위, 인민보위 사업에 엄중한 해독적 후과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또 장성택이 정치적 야심에 따라 "자기에 대한 환상"을 지어내고, 아첨 분자들을 모아 분파를 만들고 …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해 처벌을 받은 자들을 주요 직위에 앉혀 세력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장성택의 문란한 사생활도 문제로 삼았다.

중앙통신은 "자본주의 생활 양식에 물들어 부정부패 행위를 감행하고 부화, 타락한 생활을 했다"며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갖고 고급 식당의 뒷골방들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성택은 여자 관계가 깨끗하지 않아 젊은 시절 바람기 때문에 부인 김경희 당 비서와 별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위원장이 2002년 경제시찰단에 포함돼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자본주의 문화를 맛보자"며 룸살롱을 찾았다는 소문도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 국정원 직원 "상부 지시로 트윗·리트윗 활동했다"

●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상부 지시로 트윗·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모씨는 "트윗·리트윗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 '대선 개입 의혹'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 검찰이 9일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서초구 소재 모 업체 내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위' 첫 가동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앞인데…" 민망한 엄마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실천대회'에 참석해 간담회 시간에 한 부부의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조 발언은 대통령 향한 테러"

## 청와대 '선친 전철' 발언에 격앙 – 새누리, 양승조·장하나 의원직 제명안 제출키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실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해 연말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쳤다.

새누리당은 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장 의원과 양 최고위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1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즉각 이들에 대해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정(중앙정보부)이란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전날 장 의원이 대선 결과 불복을 '공식 선언' 하고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어 파문이 커졌다. 이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양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김민준기자

### '효성 비자금·탈세 의혹' 조석래 회장, 오늘 검찰 출석

효성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78) 회장에게 10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일 출석시켜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과 불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 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 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낸 의혹도 있다. /윤다혜기자 yth@

### 복지급여 부정수급 가구 적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재산이 변동이 있는 수급자는 조사 대상 6463가구 중 3994가구로 드러났다. 구는 부적정 수급자 총 745가구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 독거노인 전기점검·난방지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10~18일 독거노인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기 안전점검과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서초구와 서초 어르신행복e음센터는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이 시급한 25세대를 선정해 전기 안전점검과 노후 설비 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진단검사비용 지원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9일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내년부터 모든 임상과 진단 검사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문의 (02)2094-1672

**오늘부터 영하권 추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신촌에 크리스마스트리로 꾸며진 길을 한 커플이 지나고 있다. 비가 그친 뒤 10일 아침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연합뉴스



## 경유차 가뿐하게 달린다

### 2016년부터 14만~5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완전 폐지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된다. 환경부는 9일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을 포함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과 시설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경유차는 2500cc~3500cc 1만cc 이상 차량에 각각 14만4000원~20만1000원~57만4000원 가량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의 경우 연료 사용량과 용수 사용량에 오염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연간 1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시설물 용수 부담금의 경우 하수도 요금과 부과 목적 대상 등이 비슷하고 연료 부담금은 환경세 등 이중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racc@

# 철도노조 4년 만에 파업

###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민영화 꼼수" · 사측, 집행부 194명 고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법인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협상 시작 때 모두발언 공개를 거부한 코레일 측의 불참으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철도공사가 자문한 법무법인도 민간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은 민영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하루빨리 파업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필수 인력 유지 및 대체 인력을 활용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 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측은 이날 파업에 동참한 전국 노조 집행부 소속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파업 동참 노조원들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오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매표소 전광판에 파업 관련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테마주로 4억 '꿀꺽' 벌금으로 10억 문 '슈퍼개미'

정치테마주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가 9일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총 4억5000만여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그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이튿날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전날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윤한준기자

**동주대 '미리보는 별들의 세상' 개최** 동주대 송철 총장(사진)는 지난 9일 오후 본교 대강당에서 예비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미리보는 별들의 세상'을 개최했다.

## 화전산단 수분양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010년 조성된 부산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이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사기 분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전산단 상업용지 지주 모임인 화전상가연합회 소속 50명은 부산도시공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상업용지의 재산 가치가 3.3㎡(1평)당 최소 1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모두 100억원을 보상하라며 지난 10월 31일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수분양자 50여 명은 2009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필지당 8억~11억5000만원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상업용지 인근 8만8000㎡에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부산도시공사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업용지 대부분은 산단 조성 후 3년이 지나도록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물류단지가 들어선 땅은 아파트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부지였으며 분양자에게 아파트 조성만을 약속한 바는 없다"며 "수년간 미분양된 상태였다가 업자가 매입해 물류창고로 활용하고 있을 뿐 현재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자원봉사 3000시간 34명 '금배지' 단다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축제 '2013년 부산자원봉사자대회'가 1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영도구 자원봉사자 이순남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13명이 정부 포상을 수상하고, 허심회관 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자 김금숙씨를 비롯해 32명이 부산시장 표창을 받는다.

또 서대신3동 새마을부녀회, 부산시설공단 사랑나눔봉사회 등 13개 단체가 자원봉사 유공단체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한다. 아울러 누적자원봉사 3000시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34명은 금배지를 단다.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자원봉사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 북극정책 청사진 짠다

**부산시 오늘 기획단 회의 개최**
**개발 3개분야 실무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심의·확정 예정**

부산시가 북극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

시는 이날 10일 오전 어영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24명의 국내 북극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북극종합대응 기획단' 회의를 개최한다.

북극해 시대를 대비한 북극정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정부, 대학, 연구기관, 관계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북극 개발 3개 분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11월까지 3개 분야에서 토의 제안된 부산시 북극정책 세부추진계획을 평가 자문하고 최종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북극정책 세부추진계획은 북극해 시대를 대비한 인적·물적 인프라 창출과 미래 신해양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해운 항만물류 ▲해양자원·에너지 개발 ▲수산자원개발 등 4개 전략 분야로 구분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창출로 북극해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24개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은 북극전문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북극의 최신 정보를 수집·분석해 국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술행사 및 북극 개발 참여 기회를 선점해나가기 위한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해운 항만물류' 분야에는 북극항로 화물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부산항의 북극해 종합 항만 지원 기능 강화, 선용거래 및 극지 주변의 해양도시와 협력 강화 등 12개 세부 사업이 포함돼 있다.

'해양자원 에너지 개발' 분야는 북극해 주변의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시험 인증 및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양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기지 조성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수산자원 개발' 분야는 북극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및 북극해 시험 조업, 북극해 조업 진출을 위한 어로장비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원양어선의 현대화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후학자들 간의 상반된 논란으로 북극항로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존의 계획을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민관 합동 '실무 TF팀'과 '북극종합대응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북극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 발굴과 기존에 추진 중인 과제의 변경·조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장하균기자 [illegible]

**"137일 대장정 마치고 돌아왔어요"** 9일 경남 진해군항에서 열린 2013년 해군 순항훈련전단 귀국 환영식에서 137일간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사관생도와 장병들이 귀국 신고를 하고 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7월 25일 진해항을 떠나 14개국 15개 항을 찾았다. 이번 순항 훈련의 항해 거리는 총 5만7400㎞로 역대 최장거리다. /연합뉴스



## 철도파업 장기화땐 부산항 물류 차질

**무궁화·새마을호 감축 운행 | 경전선·동해남부선 이용객 불편**

철도노조 파업으로 부산항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경전선과 동해남부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 열차의 운행 횟수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9일 밝혔다. 평소 수출입 화물을 싣고 부산을 오가는 열차는 하루 72편이었지만 파업 여파로 36편만 운행한다.

화물 운송은 수출품과 긴급 물품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파업에 앞서 코레일은 이달 4일부터 평상시 물동량보다 15% 이상 늘려 운송을 했기 때문에 당장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철도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해 철도 파업이 당장 부산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항만 당국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 부산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코레일과 항만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철도 화물은 건설 자재와 중량 화물이 주를 이룬다.

부산항만공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화물차를 대체 운송수단으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가 대체운송을 거부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여객 열차는 무궁화와 새마을호를 중심으로 대폭 줄여 운행된다.

코레일은 KTX는 평소와 같이 하루 142편의 출발·도착편을 운행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각각 32편과 2편 줄여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을 오가는 데는 당장 불편이 없겠지만 경남과 울산, 경북 지역을 왕래하는 경전선과 동해남부선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평소 승객이 가장 적은 때를 중심으로 운행 횟수를 줄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지역 중·고생 30% "공부하기 싫어요"

### 초·중·고 1330명 조사 - 수학 무기력감 가장 높아

부산지역 중·고등학생의 10명 가운데 3명가량은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46개 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433명), 중학교 2학년(433명), 고교 2학년(464명) 등 모두 1330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의 학업 무기력 현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중학생의 24.2%, 고교생의 29%는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는 공부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질문에 초교 23.1%, 중학교 46.7%, 고교 44.7%의 학생들이 '가끔 그렇다'에 응답, 중·고등학생 가운데 45% 정도의 학생들이 학업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어·수학 과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무기력감이 높아지고 특히 수학 과목의 학습 무기력감은 고교에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학습 무기력감 최고 수치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초교가 1.99인 반면 중학교 2.71, 고교 3.08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73%, 중학생은 66%, 고교생은 6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권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학습 흥미와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급당 인원 수 감축,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학습멘토제 지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5570만원에 낙찰된 밍크고래 9일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가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밍크고래는 길이 7.5m, 무게는 4.9t, 둘레 4.0m로 이날 경매에서 5570만원에 낙찰됐다. /뉴시스

## 부산~거제 시내버스 종점 도심 연장 '가닥'

경남 거제시 변두리로 잠정 결정됐던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종점이 도심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9일 이길종 경남도의원에 따르면 이날 경남도 관계자와 시 관계자가 만나 거제 도심인 고현까지 종점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거제 종점을 고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이 종점 연장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도지사에게 도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재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 당국도 시내버스 종점을 고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 방침으로 정해지는 않았지만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처음 열린 부산·경남·거제 3개 시·도 실무회의에서 종점이 도심을 벗어난 거제 연초면으로 잠정 결정됐다.

여기다 인구 1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거제 옥포지역을 경유지로 추가하는 방안도 보류되면서 옥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안이 부산·경남·거제 3개 시·도가 협의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확인되면서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이 협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 부산은행 세계 아동돕기 기금 전달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지난 6일 유니세프 부산지사에서 유니세프 기프트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한 770만 여원을 세계아동돕기기금으로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유니세프 기프트카드는 2012년 7월 카드업계 최초로 유니세프와 제휴해 출시한 선불 기부형 카드다.

이 카드는 사용 금액의 0.2%를 부산은행에서 유니세프에 기부해 전 세계 아동을 위해 쓰이게 된다.

상품권형 무기명 선불카드인 유니세프 기프트카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권 등 총 다섯 종류로 일부 백화점을 제외한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12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은행 카드사업부 박세표(사진 오른쪽) 부장은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기부도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니세프 기프트카드와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형 상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근기자 hk@metroseoul.co.kr

좋은문화병원 사랑의 헌혈 약정
좋은문화병원(원장 문화숙)은 지난 6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조곤조)과 생명을 나누는 사랑 실천의 약속 헌혈 약정식을 가졌다.

인공번식 두툽상어 치어 방류
부산아쿠아리움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혼획어시장에서 볼 수 있는 버려지는 알들을 수거해 인공 번식한 두툽상어 치어 15마리를 국내 최초로 해운대 바닷가에서 10일 오후 2시께 방류한다. 사진은 두툽상어 치어의 모습.

한방칼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117-중-4-03호 (광고)

##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탁한 피,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편두통이나 현기증, 목·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구안와사, 고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안면마비, 부정맥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필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나온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나 다량의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관관련 질환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늘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에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지로,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전체를 해독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우리 몸에 유해한 (…)

한의학박사 허형구 원장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지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지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market index** (9일)

코스피 2000.58 (+18.97)
코스닥 502.23 (-4.03)
금리(국고3년) 2.89 (-0.03)
환율(원/달러) 1053.00 (-5.00)

**월리산 생블루베리 맛보세요**
9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월리산 생블루베리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행>

# 점포 1100개에 감사인력은 91명뿐

## 횡령·비리사건 잇따라…실적 우선주의에 금융당국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심층진단 | 수술대 오른 금융**

[글 싣는 순서]
①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② 국민은행…리딩뱅크 추락하나
③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

최근 불거진 KB국민은행의 횡령·비리·부실 의혹 사건들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내부 비리가 미치 종합 선물세트 처럼 터져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수취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금융 당국조차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가 엉망"이라며 더는 묵과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비리 피해 규모는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 273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4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이 징계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447명이었다. 은행권 비리는 지난 2009년 48건에서 2010년 57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도 391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전국 1100여 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감사 인력이 고작 91명에 불과하단 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영업점 감사를 벌이는 인력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개가 넘는 점포를 관리·감독하기엔 절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금융권에 만연한 '실적 우선주의'와 금융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해 금융권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27억원 정도다. 사고 금액에 비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리 관련자 352명 중 면직 조치를 당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해외에선 횡령 직원과 경영진 모두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5년 영국의 베어링은행은 직원 단속을 잘못한 탓에 파산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당시 베어링은행의 싱가포르지점 수석 트레이더였던 28세 닉 리슨은 일본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했다가 13억 달러를 날린 후 손실 은폐까지 시도했고, 결국 회사는 233년 역사를 뒤로한 채 문을 닫았다. 리슨은 싱가포르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했다.

같은 해 일본의 다이와은행에서도 임원의 무단 채권 거래로 1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뉴욕지점의 미 정부채 책임자로서 스타 트레이더로 불리던 이구치 도시히데는 이 사건으로 4년형을 받았고, 은행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액 주주들에게 7억7000만 달러를 배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대 금융국장은 "금융사고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련 관련자들에겐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 당국이 금융사고 관련자는 물론 경영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 @metroseoul.co.kr



**월 기본료 1000원 알뜰폰 써볼까**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5일 전국 226곳의 우체국에서 월 기본료 1000원의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 가운데 이날 오후 광화문 우체국을 찾은 어르신들이 알뜰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1달러=1052원…장중 최저

환율이 달러의 가치 하락에 밀려 연저점을 하향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9일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해 장 초반 1052.0원까지 밀렸다가 105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장중 최저 환율 기준으로 기존의 연저점(1054.3원)을 뚫고 내려간 것이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줄어들면서 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환율의 연저점 하향 돌파는 환율의 수준 자체보다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장에선 그동안 환율의 연저점을 심리적 기준선으로 두고 반등하는 모습을 거듭 보여왔다. 이 같은 부담에는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날 연저점이 하향 돌파되면서 당국의 묵인으로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능하게 됐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달러당 1050원 근처에서 당국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과 함께 원본 엔화 환율 상승도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원고·엔저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원·엔 재정환율도 전 거래일 종가보다 16.52원 하락한 100엔당 1018.81원으로 내려앉았다.

/하희철기자 hchul@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광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 | |
|---|---|
| 발행인 | 남궁호 |
| 사장 편집인 | 김광학 |
| 편집국장 | 조인호 |
| 부산지사장 | 김명종 |
| 서울광고문의 | 02)721-9851 3 |
| 부산광고문의 | 051)659-2100 |
| 독자센터 | 02)721-9881 |

# 실적·주가 '이중 악재'로

Issue&View
금융·건설업 충당금 논란

/김현정기자 h.kim1@metroseoul.co.kr

연말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금융·건설업종의 충당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된 업황 중심으로 부실 대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 업종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매년 쌓아야 할 비축자금이 번번이 실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건설업종의 경우 충당금으로 인한 실적 부담이 주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다.

**◆부실 대출에 충당금 폭탄 맞은 은행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충당금 영향으로 저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은 86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1.7% 줄고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대출 부실로 인한 건전성 훼손을 우려해 3분기에만 8120억원, 1~3분기 누적으로 1조935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비축하며 부실 털기에 나선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가운데 STX, 동양, 쌍용건설 등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위기에 처한 기업들과 관련한 충당금만 1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3분기 순익도 9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KB금융의 경우 KB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 대출로 인한 충당금 우려가 제기됐다. 각종 비리와 부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로만 400억원 넘는 충당금을 쌓으면서 3분기 순익(2919억원) 급감을 초래했다.

금융권의 충당금 부담은 새로운 화젯거리는 아니지만, 다른 악재와 겹쳐 단기적인 주가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KB금융의 주가는 지난달 말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에 국민주택 채권 위조, 횡령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잠시 출렁였다가 사흘 만에 반등하기도 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선·해운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매년 부실 처리 차원에서 충당금 비축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인식한 상황이므로 주가에 새롭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종, 5년째 업황 침체에 충당금 부담 누적**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을 직접 겪는 건설업종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충당금 부담이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2일 한신공영에 대해 충당금 반영으로 실적이 부진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신공영에 대한 목표 주가를 6.7% 내렸다.

박용희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4~5년째 건설업종에 PF대출 부실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며 "회사별로 PF 지급 보증 규모는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 정도인 상태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 제조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PF 관련한 충당금 부담이 계속 누적돼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직접 디자인한 크리스마스카드 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고객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1년차 이직>

# 올 이직률 15%…신입이 절반

직무별 제조·생산 가장 많아

올 한 해 10명 중 1명 이상의 직장인이 다니던 회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4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이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15.8%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직무로는 제조·생산(21.6%), 영업·영업관리(20.6%)가 상위에 올랐다. 이 밖에 서비스(14%), IT·정보통신(6.1%), 연구·개발(5.1%), 디자인(4.8%), 재무·회계(4.4%) 등이 이어졌다.

연차별로는 1년차 이하 신입(51%)이, 성별은 남성(61.3%), 결혼 여부는 미혼(79.2%)이 이직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밝힌 이직 사유로는 연봉 불만족(24.2%)과 업무 불만족(20.3%)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국현기자 lkh@

# 카톡 또 불통…이용자 '분통'

올들어 네번째…장비문제 탓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더니 역시…"

9일 오전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불평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10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카톡 서비스가 모바일은 물론 PC에서도 접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서비스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밝혀졌지만 카톡 이용이 가장 많은 오전 출근 시간대 서비스가 불통돼 사용자의 불만이 컸다.

이에 유저들은 카톡을 대신할 모바일 메신저 찾기에 열을 올렸다. 메이저 브랜드인 네이버 '라인'. 다음 '마이피플', 네이트 '네이트온' 외에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 '틱톡' '마이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다.

문제는 이들 모바일 메신저의 이용자 그룹이 카톡만큼 넓고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카톡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날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모바일 메신저 업계 관계자는 "카톡 쏠림 현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날 SK플래닛의 앱 장터 'T스토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와 SK플래닛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훈기자 zen@

# "김치냉장고 저장용량 40% 수준"

김치냉장고의 실제 용량은 표시 용량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탠드형 300ℓ급 김치냉장고의 저장 용량, 김치저장 성능, 소음, 소비 전력량, 냉각 속도 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삼성전자(ZS33BTSAC1WE), LG전자(R-D333PGWN), 위니아만도(DXD3635TBW), 동부대우전자(FR-Q37LGKW) 등 4개 제품이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표시 용량의 40% 가량인 129~151ℓ에 불과했다. 이들 제품의 표시 용량 대비 김치 저장 용량 비율은 위니아만도 42.4%, 삼성전자 42.2%, LG전자 41.5%, 동부대우전자 38.1%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 판매되는 김치냉장고들이 김치 외에 육류와 캔 음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조 수납공간을 별도로 두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전체 용량과 함께 실제 김치 저장 용량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 국산 브라우저 '스윙' 출시

순수 토종 브라우저가 출시돼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국산 브라우저가 시장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개방형 검색포털 줌닷컴을 서비스 중인 줌인터넷은 1년여의 베타테스트를 끝내고 9일 신개념 브라우저 '스윙'을 정식 출시했다.

스윙은 국내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의 사이트에서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엑스(Active X)를 원활하게 구동시키며, 홈페이지(http://swing-browser.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내년엔 더욱 진화"

내년에는 스마트폰에서도 PC처럼 백신 프로그램을 적극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기기의 경우 아이폰에 비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안 솔루션 기업 포티넷코리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 5대 보안 위협'을 9일 발표했다.

안드로이드 OS가 스마트폰 이외에 산업 통제 시스템(ICS/SCADA)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도 더욱 진화할 것으로 포티넷은 예상했다.

내년부터 대규모 공격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수법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와 외부에서 가정 내 제품을 운용할 수 있는 원격 로그인 소프트웨어가 주된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4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술 지원이 종료되는 윈도XP에 대한 표적 공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기자 zen@

## 3분기 해외소비 6조5000억 사상 최대

지난 3분기 중 국외 소비가 6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외 소비지출은 6조4938억원으로, 2분기(5조8381억원)보다 11.2%(6557억원) 늘어났다. 이는 종전 분기 최대인 지난해 3분기보다 2901억원(4.7%) 증가한 수준이다.

국외 소비지출에는 외국여행 중 현지에서 쓴 현금과 카드 결제, 유학 송금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해 해외로 빠져나간 대금도 포함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관광 지출과 함께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구매(해외 직구)까지 확산되면서 국외 지출이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 영업이익이 주가 등락 가른다

올해 상장사들의 실적 중 영업이익의 증감이 주가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14개사의 올해 1~3분기 누적 실적과 1월 2일~12월 4일 사이의 주가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256개사의 주가가 평균 25.8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031.10에서 1986.80으로 2.18%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30%에 가까운 평가이익이 난 셈이다. /임현철기자

# '퀀텀점프' 노리는 케이블

### 내년 아날로그 가입자 고화질 시청 가능·UHD 상용화

케이블 TV 업계가 내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PTV의 급성장에 맞서 다소 침체됐던 케이블 TV 업계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4년째 150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 TV 가입자 추이는 2010년 1508만 명에서 2011년 1493만 명, 지난해 1491만 명, 올 1~11월 1492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모양새다.

반면 IPTV는 2010년 309만 명, 2011년 457만 명, 지난해 619만 명, 올해 11월 현재 830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케이블 TV 업계는 IPTV 업계와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별도 장치를 달지 않아도 화질과 음질이 두 배 선명한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케이블에도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내년부터 케이블에도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8VSB는 현재 지상파에만 허용된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으로, 규제가 풀리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TV만 있으면 셋톱박스 없이 드라마·예능·영화 등 다양한 케이블 채널을 HD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고화질(UHD) 방송도 착실하게 준비 중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이미 올해 7월 UHD 방송 시험 서비스에 들어간 데 이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스마트 케이블 TV를 선보이며 한 단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20주년을 맞는 2015년에는 대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TV 업계가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정체된 시장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확충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SKT 스마트빔 판매 5만대 돌파 SK텔레콤은 스마트빔의 판매가 5만 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빔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빔프로젝터로 이달부터 전국 300여 개의 SK텔레콤 대형 유통 대리점을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 제공

## SKT·KT '아이패드 에어' 출시

SK텔레콤과 KT가 애플 '아이패드 에어' 및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를 16일 정식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는 광대역 LTE와 와이파이(WiFi)를 동시 지원해 보다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자랑한다.

두 제품은 각각 16GB, 32GB, 64GB, 128GB 제품으로 나눠 출시되며 요금제별 가격 등은 출시일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패드 에어는 9.7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64비트 A7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두께 7.5mm, 무게 478g이다.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는 7.9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64비트 A7 프로세서, 7.5mm 두께에 341g의 무게를 자랑한다. /이재영기자

# 달아오른 분양시장

## '위례2차 아이파크' 92% 계약 등 청약률이 계약률로 이어지는 단지 속출

최근 분양 시장의 훈풍을 타고 신규 분양 단지들의 높은 청약률이 그대로 계약률로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청약률은 높아도 계약률은 저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청약만 하고 계약 시점에서는 이탈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가 청약통장을 볼펜으로 매입하거나 사람을 동원해 청약률을 부풀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면서, '청약률 ≠ 계약률' 공식이 성립돼왔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CC건설이 울산 우정혁신도시 B-2블록에 공급한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이 계약 9일 만에 100% 계약 마감됐다. 지난달 평균 90.2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는 이 단지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하면서 4베이 신평면을 적용한 게 주효했다.

반도건설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A19블록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당첨자 계약을 받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역시 6일 만에 83%의 계약률을 보였다. 또 앞서 12월부터 계약을 진행한 우미건설 A16블록 '대구 테크노폴리스 우미린'도 10일 만에 95% 계약률을 달성했다. 중소형 평면, 커뮤니티시설 등에 신경 쓴 결과 수요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달 2~4일 3일간 계약을 실시한 현대산업개발 '위례2차 아이파크'와 대우건설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도 각각 92%와 86%의 정당 계약률을 기록했다.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끝날 경우 100% 달성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파라는 입지적인 장점과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가 분양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이 서울 마곡지구에서 공급한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도 조기 완판이 기대된다.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정당계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90%의 계약률을 나타냈다. 보통 오피스텔의 초기 계약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결과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19%대 모기지로 내 집 마련하세요.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사업의 신청 접수가 우리은행 본점 창구에서 9일 시작됐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소재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제공

#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층까지 수직증축

##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9일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목동 등 중층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통일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례가 주어진다. /박선옥기자

## 내년 인테리어 키워드 'Taste'

2014~2015년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도할 핵심 키워드로 '테이스트(Taste)'가 꼽혔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현대인들에게 '각자의 취향으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즐기자'는 의미다.

LG하우시스는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에서 '제14회 LG하우시스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사회문화 이슈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기반으로 향후 인테리어 흐름을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건축 및 인테리어 종사자 등 각 분야 디자인 전문가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선옥기자

입술엔 과감한 레드…눈가엔 잔한 아이섀도로 포인트 줬을 뿐인데!

# '파티퀸' 마술같은 변신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았다면 평소 수수한 모습에서 벗어나 특별한 화장에 도전해보자. 클럽 안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더라도 '미친 존재감'으로 변신시켜줄 파티 메이크업 팁을 소개한다.

파티 메이크업의 기본은 각질 없이 촉촉한 피부다. 기초 케어 시 수분크림으로 집중 보습을 하고, 메이크업 전 프라이머로 피부결을 정돈한다. 하지만 잡티나 트러블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두껍게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주고 그 위에 컨실러로 피부 다크 스폿을 가려주는 게 좋다. 슈에무라의 커버 크레용은 쉽고 빠르게 피부 결점을 커버하는 컨실러다. 밝은색과 어두운색 두 가지 색상이 동시에 있는 더블 엔드 펜슬 타입으로 휴대도 간편하다.

입술 화장은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차분한 모임에서는 투명하고 글로시한 컬러를, 돋보이고 싶은 파티에는 과감한 레드를 선택한다. 시세이도 라커루즈는 틴트의 진한 발색과 립글로스의 윤기를 모두 갖춘 립 라커다. 선명하고 또렷한 입술을 원한다면 입술 라인을 따라 바깥쪽에서 중앙을 향해 그려주고, 자연스러운 입술을 연출할 땐 안쪽을 중심으로 톡톡 두들기듯 가볍게 발라준다.

평소에는 도전하지 못했던 진한 컬러의 아이섀도나 하이라이터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다. 라이너부터 베이스, 하이라이터까지 함께 있는 아이섀도 팔레트 하나면 화려한 아이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메이크업 픽서로 번짐 방지

모임이 길어지면 아무리 예쁜 화장도 지워지기 마련이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메이크업 픽서는 피부에 막을 형성해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게 도와준다.

시세이도 홍보팀 전현정 과장은 "메이크업의 완성은 꼼꼼한 기초케어에서 시작한다"며 "피부 톤은 깨끗하게, 입술이나 눈매는 강렬하게 포인트를 주면 개성 있는 파티 메이크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 라미드호텔전문학교 정시모집

## 학업계획서·면접으로 선발

라미드호텔전문학교가 9일부터 정시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부문은 호텔관광경영학과, 커피바리스타학과, 와인소믈리에학과, 호텔조리학과, 호텔제과제빵학과, 관광통역학과 등 총 6개 호텔 특성화 학과이며 검정고시를 포함해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 전문대학 졸업자 및 중퇴자도 지원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라미드호텔전문학교 홈페이지(www.ramid.ac.kr)에서 진행되며 학업계획서(20%)와 면접(80%)이 전형 요소로 반영된다.

학교는 현재 '라미드 한식 창작 요리대회'와 'SBC 학생 바리스타 챔피언십' 등 자체적으로 학과와 관련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 발굴과 학교 이미지 성장에 힘쓰고 있다. 또 최현석 호텔조리학과 교수, 서정민 제과제빵학과 교수, 최지우 커피바리스타학과 교수, 오형우 와인소믈리에학과 교수 등 각 부문에서 최고의 교수진이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 기간에는 산학 제결을 맺은 70여 개의 산학협력기관에서 산학 실습 등을 통한 현장실무 체험도 가능하다.

또 학교는 국내 유일의 호텔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문학교로 졸업 후에는 그룹 내의 11개 계열사로 우선 취업 연계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서울 시내 특급호텔로도 취업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블랙야크 '땀 흡수 빠른 이너웨어 히트온'**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9일 서울 중구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기능성 이너웨어 '히트온'을 선보이고 있다. 히트온은 '쿨맥스' 등 소재를 사용해 아웃도어 활동 시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활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 아웃도어 오늘만 최대 85% 할인

##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 16일까지 인기 브랜드 행사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가 16일까지 올 하반기 소비자들이 많이 찾은 인기 스포츠 브랜드 11개를 선정해 단독 행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다운점퍼 등 아우터를 중심으로 기모 의류, 패딩 부츠 같은 보온성과 활동성을 강조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아웃도어스는 10일을 '아웃도어 데이'로 정하고 이날 단 하루 동안 정가 대비 최대 85% 할인 및 추가 30% 쿠폰 할인 등 올겨울 최종 할인 행사를 펼친다. 네파, EXR, 헤드, K.J.CHOI, BFL 아웃도어 주니 등 등산·스포츠·골프 캠핑 분야의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아울러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보드 시즌을 맞아 S.T.L, 볼랜드, 버튼 등은 의류 및 용품을 최대 20% 저렴한 할인 쿠폰 가로 내놓는다.

◆독일 명품 축구 브랜드 JACO 독점 수입

아웃도어스는 독일명품 축구 브랜드 자코(JAKO)를 단독으로 수입해 독점 판매를 진행한다.

감각 있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덕다운 점퍼, 트레이닝복 세트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자코는 현재 독일 스포츠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자지하고 있는 전통과 신뢰성을 가진 브랜드로 유명하다. /박지원기자

# 강강술래 2인분 시키면 1인분 '서비스'

## 온라인몰선 할인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5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ml 5팩·15인분)를 40% 할인된 3만2400원에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알뜰 술래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도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쫄깃한우찍갈비(3세트·1.08kg) 4만2000원)와 흑염자반돈너비아니(3세트·1.08kg·2만52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서초점도 주말에 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일상에 지친 심신 치유에 도움을 주는 출판그룹 '길벗'의 도서 증정 이벤트도 벌인다.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은 여행작가 5명이 지역별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와 맛집·숙소 등을 소개하며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질병의 치유와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공간을 설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영일기자

## 감기 물렀거라…우리 나가신다

### 비타민 C 풍부한 음료제품 잇따라 출시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계속되면서 주변에 감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뜻한 다운 재킷에 가습기, 마스크 등 감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습관은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다. 비타민 C에는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어 바이러스 활동을 약화시켜주고 콧물, 재채기, 기침과 같은 감기의 대표적인 증세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돌(Dole)코리아가 출시한 '후룻바틀'은 엄선된 과일을 100% 과일주스에 담아 비타민 C가 풍부하다. 후룻바틀 믹스후룻에는 감기에 좋은 사과, 배, 파인애플이 들어있어 증세 완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출시한 '한라봉과 유자레몬'은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유자, 레몬, 제주산 한라봉을 사용한 은장용 건강 과즙차로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또한 패키지는 20~30대 젊은 여성의 취향에 어울리도록 과일 그림과 독특한 캘리그래피를 적용해 아기자기한 느낌을 살렸다.

신체의 기온 차이는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어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꿀, 홍삼 등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청보그의 '스페셜K 귀리&허니'는 기존의 쌀로 만든 후레이크에 고소하고 담백한 귀리 조각들을 꿀과 함께 뿌려 더욱 맛있게 몸매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다. 꿀의 달콤한 맛은 물론 비타민 B, 섬유소 등 영양소가 풍부해 타임지 선정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귀리가 들어있어 담백하게 시리얼을 즐길 수 있다.

사포닌 전문기업 천지양이 출시한 '셀리진'은 6년근 국산 홍삼을 특수 제조공법으로 제조해 홍삼 사포닌 특유의 쓴맛은 없애고, 천연 과일 성분과 벌꿀 등을 가미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낸 젤리 타입의 홍삼 건강기능식품이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 흡수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풀무원 다논의 '아이러브 요거트'는 장 건강을 통한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 1일 기준치의 100%인 200 IU가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비타민 A, B, E 1일 기준치의 20%가 각각 함유돼 주기적인 영양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정은실기자 ems@metroseoul.co.kr

## 고객 1000명 '위키드' 초청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7일 잠실 샤롯데시어터에서 우수 고객 1000명을 초청해 인기 뮤지컬 '위키드'를 관람하는 '야쿠르트 콤비스 데이' 행사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한국야쿠르트는 이날 참석 고객들에게 발효유 '7even(세븐)'과 초콜릿 세트를 선물했으며 미참가 5만여 명에게 '브이푸드 비타민'과 '팔도비빔면'을 전달할 예정이다.

## 스타키보스보청기 판매

**금강보청기**가 10일 밤 11시50분부터 CJ오쇼핑에서 '스타키보스보청기(12채널 12밴드)'를 판매한다.

보청기는 금강보청기 제품 중 가장 작은 고막형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소비자가격 410만원인 제품을 198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24개월 무이자도 가능해 월 8만2500원이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착용 후 30일내 100% 반품, 방문서비스, 배터리 2년분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2년 무상 A/S가 보증되며 1년 이내 분실 시에는 5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재구입할 수 있다. 문의 1588-5233

## 3000만달러 수출의 탑 수상

**보령제약**이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수출액을 집계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된다. 보령제약은 이 기간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을 수출했으며 주력 수출품목은 '카나브', '젬포스', '세파참생제', 그리고 항암제 원료인 '독소루비신' 등이다.

## 연말 다양한 장르 콘서트

**그랜드 힐튼 서울**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인 하하와 출연 확정으로 매진을 기록 중인 리쌍 콘서트가 크리스마스이브와 당일 열리며 인디밴드 바이브레이션와 로맨틱 펀치도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을 앞두고 있다.

조관우·임정희 콘서트가 21일, 홍광호·최정주·윤공주의 마지막 설워 콘서트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공연을 기다리고 있으며 식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남진 디너쇼(28일)와 최현우 매직쇼(29일)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빛의 거리' 걸으며 추억 만들자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종합 스포츠·레저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겨울 시즌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빛의 거리'를 선보였다. 눈 내리는 겨울 분위기를 빛으로 재해석한 빛의 거리는 약 20만여 개의 LED 조명과 빛 조형물로 꾸며졌으며 다양한 장식물이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웅진플레이도시는 빛의 거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미니콘서트와 퍼레이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1577-5773

### 락앤락·제로투세븐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 "워킹맘 일하기 편한 회사로"

유통업계에 워킹맘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락앤락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3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락앤락은 지난해 4월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기업이 아님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립, 임직원의 가족친화 경영에 힘쓴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금연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체력 단련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아동 전문기업 제로투세븐 역시 육아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월 2회 패밀리데이, 자녀출산 지원비 제공 등을 실시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사내 중국어 어학 지원, 우수 사원 대상 해외연수 지원 등을 통해 임직원의 자기 계발을 독려하고 있다.

/이치연기자 [illegible]

## 2세 가지려 계획 세웠다면 안질환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임산부는 출산까지 10개월 동안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는다.

이는 눈도 예외가 아닌데 임신부 중에는 종종 근시나 안압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행히도 대부분이 출산 후 회복되지만 문제는 출산 후에도 시력 회복이 어려운 안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간혹 안질환으로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임신 전에는 반드시 안과를 찾아야 한다.

**◆고도 근시나 안질환 있다면 임신 계획 때부터 전문의 찾아야**

우선 고도 근시 산모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망막이 안구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망막박리 등의 안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망막박리는 곧바로 수술해야 하는 응급 질환이라 더욱 위험하다. 게다가 안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안약이나 마취제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황반변성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들은 임신 전후로 주의해야 한다. 임산 중 병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그중 당뇨망막병증은 임신에 의한 호르몬 변화로 갑자기 질환이 진행되면서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더욱이 당뇨망막병증은 상태가 [illegible]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는 특징이 있어 당뇨병이 있는 임산부라면 주기적으로 안과를 찾아야 한다.

또 녹내장 등 기존에 치료 중인 안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약물치료를 걱정하는 임산부가 많은데 안약 대신 레이저 치료가 가능해 무작정 치료를 중단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형구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계획하면서 안질환을 간과한다"며 "질환 치료를 위해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전문의를 찾아 사전에 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anul@[illegible]

# 아역배우 군기반장이라는 그녀

## 내일 개봉하는 실화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

전도연(40)이 명성에 걸맞은 명품 연기를 선사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인의 가방을 대신 운반하던 중 프랑스의 한 공항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오인돼 지구 반대편에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여인 정연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11일 개봉)에서 전도연은 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이 주는 답답함과 먹먹함에 깊은 울림과 감동까지 녹여냈다.

**◆로케이션**

프랑스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한 달가량 촬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오랜만의 현장 복귀라 어색하기도 한 데다 실제 교도소를 빌려 촬영하느라 제한된 시간 안에 무조건 해내야 하는 환경이 무척 힘들었다. 깊은 감정 연기를 해야 하는데 어색해 보이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혹시나 이상하더라도 관객들이 "전도연인데 일부러 연기 못하는 설정을 하는 거겠지"라고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영화마다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사실 어떤 길이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다.

**◆딸**

딸 혜린이로 출연한 강지우 양의 연기는 대단했다. 워낙 아이를 예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역에게 매우 엄하다. 혜린이가 울어야 할 때 울리는 건 내 몫이었다. 아이라도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냉정하게 대한다. 아이들의 군기반장이다. 실제 다섯 살 딸에게도 그렇게 대한다. 엄마의 빈자리가 늘 미안해 푸근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다. 울고 고집부린다고 들어준 적이 없다.

**◆송강호**

'변호인'과 일주일 차이로 개봉하는데 대결 구도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2년 만에 나왔고, 송강호씨는 올해만 세 번째인데 억울하다. 호호. '넘버 3'를 보고 팬이 됐다가 '밀양' 때 처음 만나 본 송강호씨는 굉장히 이기적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많은 배려를 해줬다. '밀양' 때의 송강호가 그립다.

**◆이병헌**

이병헌씨와 '협녀: 칼의 기억'을 한창 촬영 중인데 14년 만에 다시 만난 사실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사람이 정말 변함이 없더라. 그 사이 월드스타도 돼 어려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똑같아서 마음이 편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숙제는 액션이다. '집으로…'를 끝내자마자 지난 여름 세 달 동안 액션 스쿨에서 훈련했다. 이제는 칼을 다루고 와이어를 타는 건 꽤 나게 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

**◆성형**

필요하면 할 텐데 나는 자연스러움이 좋고 내 얼굴이 좋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다. 동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노력으로 어떻게 된 건 아니다. 부지런한 편이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피부관리실에 가지 못할 때는 팩이라도 사서 집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도 전한 별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선뜻 역할 제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동안이니까 어떻게 해보겠다'는 결론은 한 통하나 보다. 후훗.

> 마약운반범 오인 수감 주부역
> 제한된 시간 교도소 촬영 고충
> 난 다섯살 딸에게도 엄한 엄마
> 믿음주는 배우되고 싶어 ”

**◆해외 진출**

어떻게 하는 건지 내게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후에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오디션 제안을 받았다. 언어가 안 돼 엄두가 안 났다. 액션 배우로 해외에 데뷔하는 것도 싫었다. 해외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액션이 아닌 드라마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언어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목표**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 항상 좋은 작품을 고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 전도연이 아니라 작품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진/씨제이(CJ)엔터테인먼트 디자인/박은지

<앨범 '12월의 기적'>

# 선주문 40만장… 역시 음반킹 엑소

## 2개 국어 버전 발매… 멤버들 감성 매력 '물씬'

신예 아이돌 그룹 엑소(사진)가 '음반 시장 불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13년 음반 판매 킹'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엑소가 새 앨범 선주문만 40만 장을 받으며 연간 총 음반 판매 100만 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엑소는 9일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 수록곡 전체를 한국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온·오프라인에 동시 발매했다.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9일 발매되는 엑소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의 온·오프라인 선주문 수량이 40만1230장(한국어 24만3220장, 중국어 15만8010장)을 기록했다.

이로써 엑소는 음반 판매 부문에서 또 한 번 대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발매한 1집 'XOXO(키스 앤 허그)' 판매량이 96만 장을 기록해 100만 장 돌파는 확실시된다.

한편 새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지난 5일 선공개된 '12월의 기적'은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과 스트링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발라드곡이다. 그간 주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엑소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다.

한국어 버전에는 엑소 멤버 중 디오·백현·첸이, 중국어 버전에는 루한·백현·첸이 보컬로 각각 참여했다. 노랫말에는 연인과 헤어진 후 그리움이 커져가는 애절한 마음을 담았다. 이 곡은 발표 직후 국내외 여러 음원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엑소는 5일 엠넷 '엠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12월의 기적'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정하윤기자 yjw@metroseoul.co.kr

# 빅뱅 몸짓따라 10만 야광봉 춤췄다

## 후쿠오카 야후돔 콘서트 5인 5색 무대 팬들 열광

그룹 빅뱅(사진)이 후쿠오카 야후돔에서 10만 관객 끌어모아 일본 6대 돔 투어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해외 가수 최초로 일본에서 6대 돔 투어를 진행 중인 빅뱅은 이번 공연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라이브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2009년 발표한 일본 데뷔 싱글 '마이 헤븐'(일본 레코드대상 최우수 신인상의 영광을 안긴 히트곡 '가라가라 고', 등을 비롯해 '판타스틱 베이비' '배드 보이' 등 3시간 동안 30여 곡을 선사했다.

다섯 멤버들은 각자 다른 매력으로 솔로 무대를 꾸며 자신만의 음악 색깔과 개성을 선명히 했다. 멤버 전원이 일본어를 구사했고, 무대 전체가 움직이는 돌출 스테이지와 무빙카로 대규모 공연장 구석구석에 자리한 팬들과 교류했다.

지난달 16~17일 사이타마 세이부돔에서 시작한 투어는 지난달 29일~이달 1일 오사카 교세라돔으로 이어졌고 후쿠오카 야후돔까지 현재 3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오사카 1회 추가 공연을 포함해 6개 도시에서 16회 공연을 펼쳐 총 77만 관객을 동원할 예정이다.

현지 관계자는 "빅뱅의 돔 투어에 대한 일본 팬들의 반응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후쿠오카에서 하루만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이틀에 걸쳐서 개최했다. 이틀 동안 시야 제한석을 오픈해도 모자랄 정도로 팬들의 티켓 쟁탈전이 치열했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

## 크레용팝, 수험생 100명과 '족발 데이트'

걸그룹 크레용팝이 수험생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9일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크레용팝은 8일 오후 장충동의 한 족발가게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팬들을 초대해 입시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을 위로했다.

이날 이벤트에는 팬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100명의 팬들이 참석했다. 족발 이벤트는 5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크레용팝은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등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크레용팝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자리를 자주 마련해 팬 여러분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용팝은 지난달 26일 겨울 스페셜 앨범 '크리스마스'를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훈기자

## 힙합의 참맛 느껴봐… '모어 댄 필' 28일 개최

올겨울 특별한 힙합 파티가 열린다.

올해 힙합계 흐름을 주도한 버벌진트와 범키를 비롯해 산이, 아웃사이더가 합동 공연을 개최한다. 이들은 28일 오후 3시30분과 7시30분 세종대 대양홀에서 '2013 모어 댄 필' 이란 타이틀로 두 차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힙합의 역동적인 매력과 네 가수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버벌진트는 '시작이 좋아' '이게 사랑이 아니면' '비범벅' 등 여러 장의 싱글을 히트시키며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했고, 10년간 무명이던 범키는 '미친 연애'와 '갖고 놀래' 가 연이어 음원차트 1위에 올라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또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버벌진트의 범키의 소속사인 브랜뉴뮤직으로 옮긴 산이는 '아는 사람 얘기'와 '어디서 잤어'를 히트시켰고 지난달 21일 새 앨범 '낫 베이스드 온 더 트루 스토리'를 발표했다. 지난해 제대한 아웃사이더도 6월 발표한 '슬피 우는 새'로 활약했다.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출연진의 솔로 무대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이 함께 어울려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예약은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정성훈기자

## star bag

### 빅스켓 볼' 마지막 OST 발표

가수 나비가 tvN 월화극 '빅스켓 볼'의 마지막 OST '나는 늘 그대가 보고 싶다'를 발표했다.

'나는 늘 그대가 보고 싶다'는 떠나간 사람에 대한 연민을 노래한 팝 발라드다. 볼 수 없어서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노랫말로 절절하게 표현됐으며 절제된 듯하면서도 애절한 나비의 목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 日 정규 3집 내년 1월 발매

그룹 2PM의 일본 정규 3집 '제네시스 오브 2PM'이 내년 1월 29일 발매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강인한 남성의 외적인 아름다움 안에 숨겨진 내면의 순수함과 부드러움을 앨범에 담았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앨범에는 오리콘 싱글 위클리차트 1위를 기록한 '원더 게임즈'와 드라마 주제곡으로 인기를 모은 '기브 미 러브' 등 총 13곡이 담긴다. 멤버 우영의 솔로 자작곡 '메리 고 라운드'도 포함됐다.

### 예쁜 남자' 톱배우로 출연

'예쁜 남자' 장근석이 네 번째로 만나는 섬공녀 박지윤의 반전 드레스가 공개됐다.

박지윤은 11일 '예쁜 남자' 7회에 톱배우 묘미로 출연해 독고마테(장근석)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신비스러운 그녀의 얼굴처럼 매혹적인 인물 묘미와 독고마테의 스토리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묘미는 찍화(소유진)를 비롯해 일력선녀(김예원), 김인중(차현정)에 이은 네 번째 여자다.

### 세번째 싱글 '기프트+' 공개

걸그룹 시크릿이 9일 세 번째 싱글 '기프트 프롬 시크릿'의 전곡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앨범은 힙합 듀오 언터쳐블의 멤버 슬리피가 참여했다. 시크릿은 음원 공개와 함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뮤직비디오도 공개했다. 한편 시크릿은 13일 방송되는 KBS2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 로또수능 낙담도 배치표 과신도 '금물'

19일부터 201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입시전략 어떻게 짤까

## 대학별 전형 꼼꼼히 분석한 뒤 소신·안전지원 병행

"두 손으로도 모자라" 최근 한 입시전문 기관의 주최로 열린 합격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지원대학 전국 참고표를 보고 있다. /뉴시스

201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배치표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원 원칙을 분명히 세우되 적정·안전·소신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 대학 선택? 학과 선택? 우선 결정

지원에 앞서 대학과 학과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놓을지 결정해야 한다.

정시는 가·나·다군별로 1번씩 모두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무리한 상향 지원은 실패 가능성이 크고 지나친 안정 지원은 합격해도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지원, 안정 지원, 소신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인의 성적, 희망, 위치와 조건 등을 두루 고려해 적절한 전략을 세우되 재수생은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치표 맹신 위험 – 환산점수 고려

배치표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배치표는 대학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점수로 만들어진 자료다. 따라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원 시에는 너무 의존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좀 더 신뢰도가 높고 타당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대학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학별 환산점수, 즉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등이 고려된 점수를 가지고 지원 여부의 유·불리 등을 판단해야 한다.

◆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

첫 선택형 수능이 시행된 올해에는 특히 수험생 스스로 대학별 전형 방법을 세밀하게 분석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먼저 반영 영역 수,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 전형 요소와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여부, 지정 과목 유무, 수능점수 활용 방식, 내신 반영 방식,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등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해야 한다. 이어 전형 방법에 따른 유불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대학 전형요강 꼼꼼히 체크

최근 입시 결과를 보면 수능 반영 영역 수가 적은 대학, 수능 영역을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한 대학 등은 예외 없이 경쟁률이 높았다.

전형 방식에 따라 수험생이 피하거나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각 대학의 전형 요강과 모집군별 특징을 정확히 고려해 올해 지원자들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이 좋다.

각 대학의 모집 단위별 추가 합격자 비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상담하는 것은 자칫 세운 지원 방향과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입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김민준 기자 mkim@metroseoul.co.kr

## 죽전-천안캠퍼스 수능 반영영역 달라

ipsi.dankook.ac.kr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문의 031)8005-2550

단국대학교는 정시에서 2063명(죽전 974명·천안 1089명, 정원내 기준)을 선발한다.

가군은 국제학부(국제경영학),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 전자전기공학부, 화학공학과 등 17개 학과가 새로 편입돼 해병대군사학과(천안), 예능계 등 177명(죽전 146명·천안 31명)을 선발한다.

나군 837명(죽전 447명·천안 381명), 다군 1049명(죽전 379명·천안 670명)을 선발한다. 정원외로 나군에서 수시전형 미달자와 특수교육대상자(26명)를 선발한다.

수능점수로 백분위점수를 활용하며 의·치의예과는 표준점수+백분위(과탐)를 활용한다.

죽전 인문자연은 수능 100%(가나군), 수능 70%·학생부 30%(다군)를 적용해 뽑는다.

천안 인문자연은 수능 80%·학생부 20%(나군), 수능 70%·학생부 30%(다군)로 선발하며 해병대군사학과(가군)는 다단계전형(1단계: 학생부30%·수능 70%, 2단계: 학생부10%·수능70%·체력검정 20%) 등을 치른다.

수능 반영영역은 죽전(인문–국어B·수학A·영어B, 자연–국어A·수학B·영어B), 천안(인문자연: 국어A/B·수학A/B·영어A/B, 의예과·치의예과–국어A·수학B·영어B, 영역별 B형 가산점 15% 부여) 등 캠퍼스별로 상이하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년별 가중치 없이 전학년 성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문계열 '국영수사', 자연·의과계열 '국영수과', 간호학·건축학 '국영수'를 반영하며 예체능계열은 '국영사'를 반영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죽전·천안 캠퍼스 20~24일.

## 3개 학과 빼고 수능 70%·학생부 30%

enter.duksung.ac.kr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문의 02)901-8188

덕성여자대학교는 19~23일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가군 일반전형 219명, 나군 일반전형 379명, 정원 외 특별전형인 농어촌학생 43명,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31명, 기회균형선발인 사랑나눔파트너전형 16명 등 총 688명을 선발한다.

생활체육학과와 동양화과, 서양화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수능 성적 70%와 학생부 성적 30%로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점수를 활용한다.

수능 성적은 인문·사회·디자인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사탐 응시자는 국어 B형 40%, 영어 B형 40%와 수학 A형과 사탐 중 선택 20%를 반영하며, 과탐 응시자는 국어 A형 40%, 영어 B형 40%와 수학 A·B형과 과탐 중 선택 20%를 반영한다.

자연과학·정보미디어 모집 단위는 수학 A·B형 40%, 영어 B형 40%와 국어 A·B형과 탐구 중 선택 20%를 반영하며 수학 B형 응시자에게는 수학 취득 백분위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프리팜–메드(Pre-Pharm-Med)학과는 수학 A–B형 40%, 영어 B형 40%와 국어 A·B형과 과탐 중 선택 20%를 반영하며 수학 B형 응시자에게는 수학 취득 백분위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동양화·서양화·생활체육학과는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A·B형, 탐구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선택과목은 각각 50%씩 반영된다.

이과와 문과 간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특히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학과를 수능 성적과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최초 합격 여부는 내년 2월 3일 오전 11시 덕성여대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 일반계열 70% 수능 성적만으로 뽑아

admission.yonsei.ac.kr/seoul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문의 02)2123-4131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23일 정시모집 가군에서 1037명(수시모집 미등록 인원 제외)을 모집한다.

일반계열은 전체 모집 인원의 7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일반 선발 30%는 학생부(50%)와 수능(50%)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국어A, 수학B, 영어B, 과학탐구' 또는 사회탐구'에 응시한 학생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 국어 A형과 수학 B형의 선택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활용한 변환 점수를 적용한다.

사회탐구는 과목 선택에 제한 없이 응시한 2과목을 반영하나, 과학탐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에 모두 응시(I, II 구분 없음)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점수를 적용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없으나, 국어와 영어에 응시한 경우 해당 점수(3단계 대상자)를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우 인문계는 국어·영어·수학, 사회 관련 과목을,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관련 과목을 반영한다.

# 일반전형·입학사정관전형 가군 선발

enter.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문의 02)3277-7000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인 사회통합전형을 가군에서 선발한다.

국제학부는 수시모집 국제학부 특별 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인문·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와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는 우선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모집 단위별 반영 영역의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단위별로 정시모집 인원의 70%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인원은 학생부 40%, 수능 60% 비율을 반영해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자연계열로 선발한 간호학

부,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는 정시모집에서는 인문계열로 선발한다는 것을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한다. 2014년 1월 2일 우선선발 합격자를 발표하며,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를 실시한 후 2014년 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이화여대는 신입생 50%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수능 반영 백분위→표준점수로 변경

iphak.ssu.ac.kr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문의 02)820-0050~54

숭실대학교는 20~24일 2014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1216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주요 모집 요강은 ▲자연계열 학과 가→나군으로 변경 ▲정시 나군 문예창작학과, 생활체육학과 실기고사 실시(수시에서 이동) ▲수능 반영 요소 변경(백분위점수→표준점수) ▲학생부 반영 방법 변경(해당 교과 전 과목→상위 3개 과목) ▲SSU참사랑인재전형(입학사정관전형) 모집군 변경(가군→다군) 등을 들 수 있다.

숭실대는 정시 가군에서 수능 100%로 471명을, 나군에서는 수능 70%와 학생부 30%를 반영해 471명을 뽑는다.

정시 가·나군에서 인문계열은 국어B, 수학A, 영어B, 탐구(사탐·과탐)를 반영하고, 자연계열(글로벌미디어학부 제외)은 국어A, 수학B, 영어B, 과학탐구를 반영한다. 정시 다군은 실기고사전형과 SSU참사랑인재전형을 통해 274명을 선발한다.

정시 가군과 나군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B 35%, 수학A 15%, 영어B 35%, 탐구 15%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A 15%, 수학B 35%, 영어B 25%, 과탐 25%를 반영한다.

# 인문·자연계열 일부 다군 분할해 모집

iphak.uos.ac.kr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문의 02)6490-6180

서울시립대학교는 정시모집에서 총 인원 868명을 가군 132명(예체능계열), 나군 671명(인문·자연계열 일반 전형 및 기회균등 전형II), 다군 65명(인문·자연계열 일부 학과)으로 분할 모집한다.

지난해와 같이 인문·자연계열 일부 학부·과를 다군으로 분할해 수험생의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다군은 수능 100%로 선발하며 나군은 모집 인원 30%를 우선 선발 방식으로 수능 70%, 학생부 30%로 선발한다.

나머지 일반 선발 70%는 수능 100%로 뽑는다. 가군 예체능계열은 수능, 학생부,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점수

를, 탐구영역은 백분위점수를 활용한 자체 변환 점수를 사용한다.

일반 전형 우선 선발 학생부 반영 방법은 4개 교과(국·영·수·사/과)의 전 과목 중 각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씩 총 12개 과목이 반영되며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다.

등급 간 점수 차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한다. 단 예체능계열은 전 학년 국어, 영어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

# 수시 미등록 인원 정시 나군으로 이월

admission.sookmyung.ac.kr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문의 02)710-9920

숙명여자대학교는 19~23일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선발 인원은 총 986명으로 정시 가군 일반 전형은 수능 성적으로만 총 532명을 선발하며, 예체능계열은 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정시 나군 일반 전형은 총 421명을 선발하며,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0%를 수능성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인원은 수능 70%, 학생부 30%로 일반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미등록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 나군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되므로 최종 모집 인원은 원서 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일반학생전형의 가군과 나군 우선 선발 전체를 수능 100%로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영역별 백분위를 적용하며 모집 단위별로 지정한 수능 4개 영역(체육교육과·공예과 3개 영역, 예체능계는 2개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인문계는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B형, 사회탐구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자연계는 지난해와 달리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총 4개 영역을 반영한다.

또한 특별 전형으로 정시 가군에서 사회통합II, 특수교육 대상자(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 외)이 있다.

# 서울캠퍼스 나·다군…천안은 가·나군

admission.smu.ac.kr

Global Dynamic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문의 02)2287-5080 041)550-5013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24일 나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정시 모집 인원 600명 중 나군은 일반 전형 296명을, 다군은 일반 전형 258명을 뽑는다.

신설된 군사학전형은 다군에서 16명을, 나군 정원 외로 154명을 선발한다.

일반학생전형 기준으로 수능 100%를 반영한다. 수능 반영 방법은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수능 A, B형 선택은 일반학생전형 기준으로 영어영역은 모두 B형을 선택해야 한다.

예체능계열에서는 탐구영역의 반영을 폐지했으며 사범대, 경영대를 제외한 인문사회

과학대학 및 자연계 학과에서 국어와 수학에 A, B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캠퍼스(admission.smu.ac.kr/cheonan)는 19~23일 가·나군으로 분할 모집하며 전체 정원 내 입학 정원인 1450명 대비 48.41%인 702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일반)은 수능중심 전형으로 학생부교과 20%, 수능 80%를 반영하며 예체능은 실기 중심 전형으로 학생부교과 20%, 수능 40%, 실기 40%를 반영한다.

## 영어·중국어 전공 면접 성적 30% 반영

ipsi.hansei.ac.kr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문의 031)450-5061

한세대학교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을 정원 내 245명, 정원 외 10명을 포함해 모두 25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에 비해 수시모집 인원의 비율이 증가했다.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도(284명)에 비해 10.22% 줄어든 255명을 뽑는다.

학년 비율은 전년도와 똑같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로 반영된다.

전형 방법은 신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가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를 적용한다. 올해 신학과는 지난해와 달리 면접의 비중을 10% 늘리고 학생부의 비중을 10% 줄였다.

2014학년도에는 영어·중국어·산업보안학과가 신설됐다. 영어통번역학과가 전공 명칭을 영어과로 변경했고 국제언어학부에 영어과와 신설된 중국어과가 설치됐다. 영어과와 중국어과는 각각 3명, 8명씩 선발한다.

인문사회학부에는 산업보안학과가 신설돼 일반 전형으로 8명을 선발한다.

영어·중국어 전공은 면접고사 성적을 30% 반영하므로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고교 계열에 상관없이 교차지원 가능

ipsi.sungshin.ac.kr
성신여자대학교
문의 02)920-2000

성신여자대학교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483명, 나군 313명 등 총 796명(정원 내)을 모집한다.

가군 일반학생전형의 일반계 학과(부)는 수능 100%를, 사범계열은 수능 95%, 교직 적·인성 구술면접 5%를 반영한다. 다군 일반학생전형의 일반계 학과(부)는 수능 100%를 반영한다.

가·나군 분할 모집을 실시하는 공예과, 산업디자인과는 가군은 수능 50%, 실기고사 50%를, 나군은 수능 60%, 실기고사 40%를 반영해 차별화했다.

가군은 지정 영역 필수 2개, 선택 1개를 기본으로 하는 2+1 체제를 유지(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 예외)하며 다군 인문계학과는 지정 영역 3개(국어 40%, 수학 10%, 영어 40%), 선택 1개(탐구 10%)를 반영하는 등 군별 전형방법을 차별화했다.

성신여대는 고등학교 이수 계열과 관계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글로벌의과학과 제외)하며 가군과 나군 학과에 따라 2+1 체제(필수 2과목, 선택 1과목)와 3+1 체제(필수 3과목, 선택 1과목)로 구분되므로 본인의 수능성적의 강점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능 백분위 반영…탐구 2개 과목만

admission.swu.ac.kr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의 02)970-5051

서울여자대학교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683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나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나군에서는 일반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신자전형(정원 외)으로, 다군에서는 수능3개영역전형, 일반학생전형(현대미술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으로 분할 모집한다.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미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자연)는 나·다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며 인문대학, 교육심리학과, 체육학과는 나군에서만 모집한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은 상위 등급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반영한다.

나군 일반학생전형은 전 모집 단위(예체능계열 제외)에서 수능(600점), 학생부(200점)로 선발한다.

수능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 자연과학대학(의류학과, 체육학과)이 수능 4개 영역을 차등 반영한다. 다군 수능3개영역전형은 수능 성적 100%(1000점)로 선발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다.

## 인문·자연계열 학과 나군 '수능 100%'

ipsi.dongduk.ac.kr
동덕여자대학교
문의 02)940-4047

동덕여자대학교는 20~24일 2014학년도 정시모집을 정시 나·다군으로 나눠 모집한다.

정시 나군은 일반 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전형, 기회균등전형, 서해5도 지역전형을, 정시 다군은 일반 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달리 나, 다군에서 인문·사회·자연, 예체능계열의 신입생을 학과별로 모집한다.

인문·자연계열 학과의 경우 나군은 수능을 100% 반영하고, 다군은 학생부 30%와 수능 70%를 합산해 선발한다.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는 학생부와 수능 이외에 실기 점수도 함께 반영한다.

올해 수준별 수능이 도입됨에 따라 인문·자연계열 학과는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던 방식에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예체능계열 학과는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각 계열별로 지원자가 응시한 수능 과목 유형에 따라 백분위 성적에 6~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나군은 내년 1월 24일 오후 5시, 다군은 2월 5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

## 신입생 6만명 고교 성적만으로 뽑아

www.knou.ac.kr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문의 1577-2853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내년 1월 10일까지 2014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14학년도에는 기존 인문·사회·자연·교육과학대학의 22개 학과 외에 금융서비스학부, 첨단공학부의 두 개 학부가 신설됐다.

모집 규모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학부 2000명을 포함해 6만3815명과 2, 3학년 편입생 7만6010명으로 24개 학과·학부에서 14만여 명을 선발한다.

방송통신대 입시 전형에는 별도의 시험이 없다.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 편입생의 경우 출신 대학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단 신규 개설된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공학부는 산업체 재직자만 지원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는 4년제 정규 국립대학으로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일반 대학의 10분의 1, 사이버대학의 4분 1 수준인 30만원대(신규 학부는 60만원대)로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장학금 외 교육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 학생 등 다양한 학비감면 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원서 접수는 방송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9일이다.

## 일반학과 가군 수능 90%·학생부 10%

enter.hansung.ac.kr
한성대학교
문의 02)760-5800

한성대학교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가, 다군으로 나눠 총 801명을 선발한다.

일반 학과(비실기 학과)의 경우 가군은 '학생부 10%+수능 90%', 다군은 '수능 100%'를 반영한다.

하지만 가군의 수능 실질 반영 비율이 약 94%에 달해 정시 전형은 가, 다군 모두 수능 성적으로 합격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학대학은 수능 성적 반영을 지난해와 똑같이 국어와 수학 중 높은 영역을 30%, 낮은 영역을 10%로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와 탐구(사회, 과학)는 각각 40%, 20%를 반영한다.

한성대는 성적장학, 특별장학, 봉사장학 등 교내 장학제도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국가근로장학, 이공계 국가장학, 지정·기탁 장학 등 다양한 교외 장학제도가 있어 재학생 대부분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 목적의 전공 관련 교육, 고시, 어학, 학원 수강, 각종 응시료 등을 위해 학생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장학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김연아·이상화 "2연패 보인다"

## 소치올림픽 금메달 사실상 예약…슬럼프 탈출한 모태범·이승훈 "우리도 있다"

사상 첫 2연패 보인다.

'피겨 여왕' 김연아(23)와 빙속 삼총사 이상화(24·서울시청), 모태범(24·대한항공), 이승훈(25·대한항공)이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신화를 재현할 태세다.

겨울 스포츠가 약한 아시아에서 한국은 지난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6개씩, 동메달 2개로 5위에 오르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빙상 강국 코리아'를 만들어낸 주역들의 활약이 내년 2월 8일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크로아티아 '2013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여왕의 귀환을 알린 김연아는 밴쿠버에 이어 소치에서 금빛 연기로 꽃피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는 동갑내기 아사다 마오(일본)에게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사실상 이상화는 올 시즌 500m에서 경쟁자가 없는 상태다. 월드컵 4차 대회까지 출전한 7번 레이스 모두 우승했다. 올 시즌 세계신기록을 벌써 세 번이나 갈아치운 무서운 상승세다. 현재 올림픽 2연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도 하다.

밴쿠버올림픽 이후 슬럼프를 겪은 남자 선수들의 최근 분발도 눈에 띈다. 단거리 간판 모태범은 독일 베를린월드컵 4차 대회에서 500m와 1000m를 석권했다.

장거리 간판 이승훈도 지난달 월드컵 1차 대회에서 3년 만의 동메달을 따내며 부활을 알렸다. 지난 주말에도 동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팀 추월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등 꾸준히 입상권에 들며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고 있다.

/장성훈기자 yuu@metroseoul.co.kr

8일 '2013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귀국한 김연아가 기자회견에 앞서 신혜숙 코치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역대 최고 3년 21억 류중일 감독 재계약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류중일(사진) 감독이 최초로 감독 연봉 5억원의 벽을 깼다.

삼성 구단은 류 감독과 서울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금 6억원, 연봉 5억원 등 3년간 총 21억원에 재계약했다고 9일 밝혔다.

류 감독은 이로써 한국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감독 연봉 5억원 시대를 열었다. 류 감독은 처음 사령탑에 오른 2010년 12월에는 3년간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등 총액 8억원에 계약했다.

신임 감독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류 감독은 임기 내내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에서 우승, 통합 3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장성훈기자

## 우즈, 연장전서 아쉬운 준우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이 주최하는 이벤트 대회인 노스웨스턴 뮤추얼 월드 챌린지 골프대회 연장전 끝에 잭 존슨(미국)에게 무릎을 꿇었다.

존슨은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의 셔우드골프장(파72·702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즈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2011년 이 대회에서 마지막 날 선두를 달리다 우즈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존슨은 2년 만에 패배를 설욕하며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0억 6000만원)를 받았다. /장성훈기자

### 프로농구 전적 (9일)

| | | | | | |
|---|---|---|---|---|---|
| 국민은행 | 17 | 21 | 14 | 21 | 73 |
| 신한은행 | 8 | 20 | 15 | 25 | 68 |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 "오승환도 별 수 없을걸…" 삐딱한 日 언론

오승환(31)이 한신 타이거스에 입단하자 일본 언론에는 연일 관련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신의 새로운 소방수라는 점에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주로 스포츠 전문지의 기사들이 넘쳐나는데 오승환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꺼림칙한 두 개의 시선도 등장했다. 지난주 황색 타블로이드 신문 석간후지는 "한신 내부에서 오승환에 대한 초VIP 대우는 그만하라는 분위기도 있다"는 침소봉대형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우경화 흐름에 편승해 연일 한국 때리기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시샘거리를 한국 출신 소방수 오승환에게서 찾은 듯 하다.

또 하나는 오승환의 활약 가능성을 직접 겨누는 칼럼도 나왔다. 산케이신문이 게재한 칼럼으로 오승환 측이 한신 입단에 앞서 라쿠텐과도 입단 협상을 벌였고 결국 불발에 그쳤다는 것이다. 초점은 호시노 센이치 감독이 오승환을 영입하지 않은 이유에 맞춰져 있다. 투수를 보는 심미안을 갖고 있는 호시노가 막판에 오승환을 포기한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칼럼 안에는 오승환의 구위에 문제가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행간에 은근히 그런 냄새를 풍겼다. 오승환이 한국에서는 끝판대장으로 불리면서 277세이브를 올리는 최강 소방수였으나 엄밀한 일본 야구를 당해낼 수 있느냐는 오기마저 엿보였다.

오승환은 이처럼 복잡한 시선을 받으며 일본 야구 정복에 나선다. 결국 답은 하나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근성으로 이겨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삐딱한 눈길을 따뜻한 눈길로 바꾸는 일은 오로지 오승환의 몫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